

유일神 부정...業力따라 윤회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30

불교란 무엇인가 ③

이제 어려운 문제에 접어 들었습니다.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윤회'를 알아봅시다. 이 문제는 서구에서 문학에서만 조금 다루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것입니다. 윤회의 주체는 영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윤회하는 것은 업(業, karma)인데, 그것은 일종의 정신작용으로서 무한히 전생(轉生)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도 이런 강박을 한 사상가가 여럿 있는데, 특히 피타고라스가 대표적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전생에서 트로이전쟁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사용했던 방패를 어느 사원에서 발견하였습니. 플라톤의 <신국론(神國論)> 제 10권에는 '에르'라는 이름의 병사의 꿈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생할 영혼들이 각각의 강박을 마시기 전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을 그는 꿈에서 보았다. 그는 아가멤논(트로이전쟁의 그리스군 총사령관)가 독수리를, 오르페우스(그리스신화의 하프의 신)가 백조를 그리고 율리시스가 인간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환생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Rossetti의 아름다운 시에 보면 "나는 전생애에 이 자리에 있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어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하여, "당신은 과거에 무수한 생 동안 내 것이었소. 그리고 앞으로도 무한히 내 것이 될 것이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서양에서도 불교의 윤회와 가까운 순환설이 있었습니다. 성 어그스틴 같은 이는 <신국론(神國論)>에서 그것을 비판했지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업'이라고 하는 무한한 시간의 주기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힌두사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윤회를 믿은 것이지요. '업'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것입니다.



◇보르헤스는 인도인들은 현세의 가난과 역경까지도 전생애 지은 업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예로 들어 전생과 업의 엄연한 관계를 설명했다.

"나의 행동중 전생의 행위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業입니다 業은 정교한 정신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생의 한 순간도 쉬지않고 인연의 천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 천미타가 넘는 쇠로된 산이 있다고 합니다. 육백년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그녀의 비단옷으로 그 철산을 스치는데 그 철산이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일곱의 하루에 해당합니다. 신들의 수명은 대개 겁 단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힌두 전통에 의하면, 우주의 역사는 주기별로 나뉘며, 주기와 주기 사이 기간에는 바다의 말씀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다음 주기의 세상이 창조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브라만 신조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며 윤회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곁의 시간이 흐르며 브라만 신은 다시 태어나 자신의 공전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과 남자가 모두 텅 비어 쓸쓸했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과 생명들을 창조하였습니.

창조되어 태어난 신들은 먼저 태어나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브라만 신을 보고, 그가 창조주라고 믿었습니다.

이쯤에서 거시적 우주사에 대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불교에는 신(神)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신이 있다 해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 전생의 업(業)에 의하여 미리 정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1899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난 것, 내가 만년에 눈이 멀은 것, 오늘날 여러번 만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 등이 모두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의 작용입니다. 현세에서의 나의 행동 중 전생의 행위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業(業)이라는 것입니다. 업이란 너무나 정교한 정신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어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인연의 천을 짜고 있습니다. 이 천을 구성하는 실은 우리들의 의지, 행동, 잠, 불면 그리고 꿈까지도 그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도 쉬지 않고 그 천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업을 계승하는 다른 존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제자인 도이센(Deussen)은 불교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인도여행 중 거리에서 장님 거지를 만났습니. 너무나 불쌍해 보며 그를 동정하니, 그 거지가 말하기를 "제가 장님으로 태어난 건 모두 전생의 업 때문이지요. 제 눈이 멀은 건 죄를 치르느라 그런 겁니다. 합당한 결과지요." 인도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간다는 병원의 설립을 반대할 적이 있습니다. 병원과 원호시설들은 사람이 자신의 빛을 갖을 기회를 단지 연기시킬 뿐이라는 거지요. 남을 도와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어차피 빛을 갖기 위한 고통이라면, 또한 자신의 잘못을 상쇄시켜줄 어려움이려면, 그것을 겪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은 곧 그 빛을 탐감하는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업은 인정사정이 없는 윤리규범이지만, 단순히 전생의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생은 전생에 의해 결정되지만, 전생은 전전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원인은 소급됩니다. 인도인들과 불교신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생이 과거에 무한한 생을 거쳐 왔다고 믿습니다.

번역 : 김 흥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너와 나 둘 아니다' 이해 안돼요

문 저는 병원 간호사입니다.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인공, 저 사람을 얼른 낫게 해줘!' 하는데 그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스님께서서는 항상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둘이 아니라는 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진철순·경북 포항시 남구>

답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하게요. 왜냐 모르니까 말하려 놓아라 하는 것이지 본래 알고보면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만나고 하는게 그대로 법입니다.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육신이 만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통하는게 중요하지요. 이 마음이라는게 참 묘한 것입니다. 생활하는 중에 놓고가라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순간순간 화해서 나뉘며 돌아가니까 붙잡을 게 없어서 그냥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얼른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려한데 모습은 둘일지언정 마음으로 어찌 둘이었습니까? 전구는 제 각각이지만 불 들어오는 것은 다 한군데서 오는

답 지금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주인공 자리에서 나고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로 이렇게 해야지, 또는 잘 안 된다 하는 게 없습니다. 안된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저 여여하다는 말이 있지요?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가 그냥 하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끌고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할때는 무조건 주인공자리에서 한다고 믿고 맡기고 가다보면 나중에 '아하, 이게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게되고 알게되면 실행해 볼 수 있는 계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여여하게 사는데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잘안된다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믿고 놓고 가지면 됩니다. 정진이란 특별한 게 아니고 되는 것은 되는 그대로 놓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놓는게 바로 정진입니다.

기공부와 마음공부 차이점은...

문 예전에 단학수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해서 기를 모으고 호흡을 주시하는 공부를 했습

지 상 상 담

길 을 묻 는 이 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대 불교대학에서 맡고 있는 지상담 스님이 맡고 있습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전력의 힘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 낫게해달라가 아니라 '주인공! 너만이 할수 있다!'이지요.

마음공부 열심히해서 체험을 하게되면 이 마음이라는게 얼마나 고귀하고 광대무변한지를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돌려 놓아라 하느냐하면 과거에 살아온 차원에 따라 업식이 붙어다니다가 때문입니다. 이 업식이란 것은 죽어도 따라 다닙니다. 그랬다가 육신받아서 현실로 나오면 또 거기서 붙어다닙니다. 그러기에 자동컴퓨터에 입력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지을 수 있었습니까? 입력된데다 다시 입력하면 먼저 것은 지워지겠지요? 그래서 딱치는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도 되놓아서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하다보면 출연해 그릇이 비고-그것은 이름입니다만, 그릇이 비면 출연해 내가 나타난다. 참 나와 상봉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신심이 부족합니다

문 스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저도 주인공 공을 믿고 믿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둘이 피가 배일만큼 진실해 보아라. 그러면 못 녹일게 없다' 한 말 뜻이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간절할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고 곧 식어버리곤 합니다.

신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참 정진이 되겠는지요? <백광현 외·부산시 해운대구>

니다. 그런데 기 공부를 안하고 마음공부로 들어기면 신(神)은 밝아지는데 정이 약해서 이치는 알지도 능력이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최연권·광주 서구 사동>

답 단전에 기를 모아 무엇을 어떻게 한 다구요? 몸뚱이로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공부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아안다고 하던가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없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단학수련으로 깨우치셨던가요? 단학수련을 했다 가 이 몸뚱이 그만 죽어서 사대로 출어지면 그때 무엇이 되지요? 그런 공부는 마음깨닫는 공부와 천양지차입니다. 몸뚱이를 아무리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도 마음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뚱이 이전에 내가 나온 그 자리를 아는데 급선무입니다.

땅에 넘어졌을 때 떨어진 자리를 덮고 다시 일어선야 하듯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네 뿌리부터 알아라. 내 누구이전의 네 씨앗부터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니 단 전호흡으로 뭔가 안다게 참공부가 될 수 없지요. 그걸 참선이라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옛선사들이 먼저 망명을 쉬라고 그랬는데 망명이 쉬면 몸뚱이도 절로 쉬게되고 맑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무슨 신은 밝은데 정이 어떻게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다 군더더기입니다. 첫째도 마음공부 둘째도 마음공부입니다.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진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 포교원장) 은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 전 화 주 문 서 우 편 배 달 해 드 립 니 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

항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항비라는 조그마한 껍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항비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결핵(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질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뼈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있다.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발한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